■ 그림 여행



론 강의 별이 빛나는 밤

(Starry Night Over the Rhone c. 1888)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 (캔버스에 유채, 72,5 cm x 92 cm 파리 도르세 미술관)

유럽 주요 강 중의 하나인 론 강은 알프스 산의 론 빙하에서 시작해 스위스 제네바 호수를 지나 프랑 스를 가로질러 흐른 후 남 프랑스 아를르 지역에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간다.이 그림을 그린 빈센트 반 고흐가 보았던 론 강은 아마도 그가 생의 마지막 시 절에 머물렀던 아비뇽이나 아를르를 지나 흐르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밤 하늘 가득 떠 있는 별들과 강가의 불빛이 강물 위에 반사되어 빛과 어둠이 함께 진동하고 있는 그 림이다. 고흐는 죽기 2년 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그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강변에 앉을 때마다 목 밑까지 출렁이는 별빛의 흐름을 느낀다.

나를 꿈꾸게 만든 것은 저 별빛이었을까?

별이 빛나는 밤에 캔버스는 초라한 돛단배처럼 어딘가로 나를 태워 갈 것 같기도 하네.

테오,

나의 영혼이 물감처럼 하늘로 번져갈 수 있을까?

오래 전, 아를르 지방에 가 보았을 때 론 강을 볼 수 있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남프랑스의 목가적인 풍경 사이를 한가롭게 흐르고 있는 강이었다. '별이 빛나는 밤'을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유유히 흐르 는 강물을 내려다 보며 오래전 고통과 절망 속에서 도 이토록 찬란한 그림을 그려 남긴 가난한 무명의 화가를 생각했다.

그가 강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며 그의 감수성과 예술 성, 환희와 절망까지 짐작해 보고 싶었는데 왠지 자 꾸만 눈물이 흐르던 기억이 난다.

《김동백》





